광주·전남 지자체 공직기강 해이 잇단 적발

감사원, 특별점검 청탁받고 솜방망이 처벌… 시방서 멋대로 변경도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 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남구청 공무원 A씨는 공인중개사 B, C씨의 부동산 관련법 위반사실을 지난 2011년 12월 화순군으로부터 이첩받은 뒤 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청탁을 받고 규정보다 가벼운 행정조치를 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2011년 9월 10일 화순에서 토지매매 중개를 하면서 무등록중개업자와 토지 중개 등을 했으며, C씨는 무등록중개업자 D씨가 자기업소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고발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A씨는 무등록중개업자 D씨를 C씨의 무신고 중개보조원으로 조작한 뒤 행정조치를 낮추기 위해 부하 공무원에게 기존 확인서를 폐기한 후 다시 받을 것을 지시했다. 결국, 2012년 1월 B씨 사무소는 업무정지 45일, C씨의 사무소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시청 공무원 E씨는 공사 시방서를 임의로 변경하고, 도로 조명시설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국지도 49호선(본덕~임곡간) 도로개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은 E씨는 지난해 용진산터널 LED등기구 조명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변경해 줄 것을 설계사 측에 요청했다.

E씨는 이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관급자재 재발주 검토보고'를 만들어 상관의 결재를 받은 뒤 모든 LED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애초 설계서에 명시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LED 제품 5억3392만원 상당을 구매계약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발주 시점에는 LED조명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후 KS기준이나 고효율인증기준이 발표되면서 기준에 맞게 시방을 변경 발주했다"면서 "특히 설계서에 속칭 스펙(특정업체 제품만 사용토록 설계)처리가 돼 있어 모든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는데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는 함평군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급자재를 구매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함평군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함평읍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A업체와 8억8100여만원에 관급자재(수문설비) 구매계약을 했다. 함평군은 구매계약 과정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예정금액별 낙찰적용률에 따라 산출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했다. 함평군은 이에 따라 수문설비 설계가격 10억100만원의 약 88%인 8억8100만원에 계약하기로 A업체와 합의했다.

함평군은 이어 A업체로부터 8억8100만원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 업체가 모 농공단지 내에 입주했다는 근거로 2012년 6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함평군이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하기 3개월 전인 2011년 8월 농공단지에 입주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 일본 히로시마(廣島) 원폭투하로 숨진 한국인 추모 위령제가 5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앞에서 거행됐다. 원폭 투하 68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위령제에는 피폭 2세인 신형근 히로시마 주재 한국 총영사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 지난 1년간 세상을 떠난 11명을 추가한 2682명의 희생자 명부를 새로 봉납했다. /연합뉴스

테러대비 주의 당부

외교부, 재외공관에

서방국가들이 테러 첩보를 이유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해외 공관을 일시 폐쇄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지역 공관에 각별히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정부는 현재로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공관 운영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방) 테러 관련 첩보가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주의를 환기하고 잘 대비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직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위협은 없다"면서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 공관들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가 잠정적으로 공관을 닫은 예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6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예멘 주재 우리대사관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4일(현지시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교민과 기업인 보호, 대사관 경비 강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 대사관은 불가피한 대외활동 자제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통제 수단 '예산 지침' 수용 못한다

광주·전남공무원노조, 전국광역지자체 공무원 노조 반발

일·숙직비 기준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2014년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공무원노조 등 전국 광역지자체 노조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연합은 5일 오전 노조별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2014년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은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지침이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와 개선에 목적을 뒀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지침에서 기준경비로 제한된 일·숙직비, 폐지된 직원능력 개발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위법한 재정 낭비가 아니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 예산도, 불요불급한 유사·중복사업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항목"이라면서 "특히 정부는 자율에 맡겼더니 자치단체별 격차가 생겼다고 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면 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지침은 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예산편성 지침의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행하는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라"며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 제16조(노동조건 저하 금지)와 제19조(복무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의견 청취) 위반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이번 지침이 수정될 때까지 전국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가 하루 5만원(기존 3만~9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월액여비도 13만8000원 범위(10만~35만원)에서 편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진상조사 임시회

광주시의회 행자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인화)가 5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오후 안기석 광주시 체육U대회지원국장과 김준영 체육진흥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문서 위조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다.

행정자치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공문서 위조사건이 공무원의 단순 실수인지, 집행부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상층부의 묵인이나 사전인지가 있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총괄기획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과장은 "공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서정성 의원의 질의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김윤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과장의 "사전 보고도 못 받았고, 인지도 못했다"는 이날 발언은 시 본청 라인은 공문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행자위는 이날 진상조사 회의 결과를 토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세계수영대회 유치과정에서 드러난 것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지방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수산보조금 근저당 설정 '효과'

영광군, 백서영농조합법인서 6억 회수

'눈 먼 돈'으로 치부됐던 농수산분야 보조금에 안전장치가 생겼다.

5일 전남도는 "농수산 보조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시·군 공동 등기에 참여하는 등의 대책이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광군은 지난 2009년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보조금(12억6000만원)을 받은 영광 백서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보조금 일부를 회수했다.

백서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7월 채무변제 불능으로 법원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에 대한 경매 신청이 접수돼 지난 7월 낙찰돼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영광군은 보조금의 52%인 6억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농수산 보조금을 회수한 것은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에 보조금 지원 시 반드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에 중복, 편중지원, 예산낭비 등 104건이 적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개성공단 기로 속 휴가 떠난 통일장관

개성공단이 존폐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5일 여름휴가를 떠났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해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휴가를 떠났다. 그는 오는 9일까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정상화 여부를 둘러싼 갈림길에 선 중차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했다.

그러나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는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게 해야지 특정 사안만 갖고 너무 과도하게 (대응) 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에는 추호의 빈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장관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에는 추호의 빈틈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장관이 휴가를 떠남에 따라 정부의 '중대 결단'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SSET KOREA since 2005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 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 지 1094㎡ 건 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사종합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 사 모 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십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 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 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 원 : ○○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 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 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 월810만)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신가동(수완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귀농지, 전원주택 적합)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펜션,관광농원등 다용도)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융 4.5억 포함)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